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공동대표 010-8000-9965
발 신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019-279-4251.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이형철(홍국해복투 의장) 010-8893-3784
제 목 을(乙) 못한 홍국생명 해고자를 살리는 '희망 판결' 촉구 제 단체 공동 성명서
날 짜 2015. 7.23(목), (총 3쪽)

보 도 자 료

[공동성명] 미래경영상의 이유로 11년째 정리해고 중인 홍국생명 해고노동자들의 복직 판결을 호소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의 정론직필과 좋은 발전을 빕니다.
2. 회사가 큰 흑자를 봤는데도, 오히려 그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강제 퇴출당하고 정리해고를 당한다면, 미래 경영상이 위기라는 황당한 이유로 회사가 정리해고를 남용한다면 이는 결코 온당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일이 실제로 홍국생명에서 2005년 초에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서럽게 쫓겨났던 그 노동자들은 지금 무려 11년이 넘게 “부디 부당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회사로 돌아가서 일하게 해달라”며 복직 투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들의 사연이 여기저기 알려지면서, 이번 7월 24일 있는 부당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만큼은 전향적인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호소와 당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 정리해고가 일상화 된 현재, 매년 흑자 나는 회사에서 단순히 ‘전년도 대비 흑자폭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가 가능하고, 미래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가 정당화 된다면 수많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할 것이 명약관화하고 정리해고의 남발이 우려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직장을 잘 다닐 수 있겠습니까. 태광그룹은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홍국생명에서 정리해고를 자행하면서 미래경영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들이 아니라, 내부 감시가 무너진 이들 기업 안에서 벌어진 태광 재벌 총수일가들의 온갖 불법 행위와 탐욕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희생된 홍국생명 해고자들의 해고무효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서, 선고를 앞두고 을(乙)보다 못한 홍국생명의 장기 해고자를 살려달라는 호소의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선고 재판은 7월24일(금) 예정)
4. 아래 새정치민주연합 노동위원회·을지로위원회 등 정당, 노동단체·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이 함께 참여한 공동성명서 첨부하였습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별첨 : 공동성명서)

미래경영상의 이유로 쫓겨난, 을(乙)보다 못한 홍국생명 정리해고자들의 11년째 복직투쟁! 이제는 일터로 돌아 갈 수 있어야...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호소한다!!

회사가 큰 흑자를 봤는데도, 오히려 그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들이 대규모로 강제 퇴출당하고 정리해고를 당했다. 정리해고가 일상화 된 현재, 매년 흑자 나는 회사에서 단순히 ‘전년도 대비 흑자폭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정리해고가 가능하고, 미래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정리해고가 정당화 된다면 수많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할 것이 명약관화하고 정리해고의 남발이 우려된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직장을 잘 다닐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같은 일이 실제로 태광그룹이라는 재벌회사에서 자행되었다.

태광그룹은 태광산업과 대한화섬, 홍국생명에서 정리해고를 자행하면서 미래경영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열심히 일했던 노동자들이 아니라, 내부 감시가 무너진 이들 기업 안에서 벌어진 재벌 총수일가들의 불법 행위와 탐욕이었다. 미래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당한 홍국생명 해고노동자들은 사측의 해고에 굴복하지 않고 지금 무려 11년이 넘게 “부당한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회사로 돌아가서 일하게 해달라”며 복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지난 7. 14. 노동계와 학계, 시민사회, 정당 등 각계각층이 나서서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나라의 노동자들에게 가해지고 있는 무차별적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미래경영상의 이유’가 정리해고 사유로 인정되는 부당함을 고발하고, 해고를 남발하는 홍국생명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제 7. 24. 고등법원 선고를 앞두고 제 단체들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부디 전향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다시한번 호소하기 위해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홍국생명의 정리해고가 부당함은 이번에 새롭게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명명백백하다. △ 금융감독원의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홍국생명 경영실태 평가자료’에 따르면 홍국생명은 정리해고 당시에 지급여력이나 자산건전성에서 최고등급인 1등급을 받았고, 수익성과 유동성에서도 2등급을 받아, 종합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 홍국생명은 당기 순이익을 줄이기 위해 회계조작까지 했다. 홍국생명 사측의 주요 인사는 “250억 가량의 유가증권매도가능증권의 부실들을 한꺼번에 털어버리는 등 당기순이익을 축소시켰다”는 법정증언으로 회계조작이 밝혀졌다. △홍국생명은 방어적으로 남대문의 2백9십억원의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라 4천억원에 가까운 홍국타운이라는 ‘랜드마크’ 빌딩을 추진한 것이 법정에 밝혔다.

또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서 검찰에 압수된 이호진의 수첩을 보면, 이호진이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에서 이루어지는 정리해고에 매우 깊숙이 관여했던 점과 해고대상자를 미리 찍어두고 희망퇴직을 하도록 종용했던 점, 노조 활동을 하는 직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려 했던 점 등을 잘 알 수 있다.

일례로 2001.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 직원들을 대량 해고할 무렵 이호진은 자신의 수첩에 “징계사면에 따른 정리해고자 재선정, 분위기 조성(위기감), 위기 극복 위원회 발족, 휴업자 교육 문제 - 노동부 지원 고려, 돈 문제, 경비원 교육·훈련, 신상필벌(信賞必罰)의 이차원의 인사(人事)”라고 적어두고 정리해고를 목표로 거쳐야 하는 단계를 명시하고 있다. 즉, 정리해고자를 징계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이 언급되어 있는 것이고, 이는 흥국생명 정리해고에서도 사용된 방식이다. 흥국생명은 자신의 의지로 노조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노조 관련자들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고 그대로 대상들에게 통보하고 찍어내기를 한 것이다. 또한 흥국생명은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하던 노조를 와해할 목적으로 노조위원장을 3번씩이나 해고하였고, 특히 노조전임자 전원을 징계해고 했다. 정리해고와 노조 전임자의 징계해고의 결과로 노조가 무력화 되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는 당장 절벽 앞에 서게 된 상황을 말하지, 혹시 저 멀리 낭떠러지가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뜻하는 게 아니다. 이제는 법원이 그간 내린 적절치 못한 판결을 결자해지할 때이다. 무엇보다도 11년째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는 ‘을(乙) 보다 못한 흥국생명 해고노동자들’이 반드시 일터로 돌아 갈 수 있도록 재판부가 상식에 기반한 판결과 도저히 사회적으로 용납해서는 안 될 정리해고 사유를 내세운 대기업들의 반사회적 작태에 제동을 거는 좋은 판결을 선고해 줄 것을 간절하게 촉구한다. 그래서 을(乙)보다 못한 흥국생명 해고자들이 이제는 일터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하고 호소한다.

2015. 7. 23

민주노총/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새정치민주연합 노동위원회 · 을지로위원회/정의당/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금융정의연대/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민변노동위원회/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수노동조합/한국비정규교수노조/학술단체협의회/UNI-KLC(전국우정노조,전국금융산업노조,언론노조,서비스연맹,보건의료노조,사무금융연맹)